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석사 학위논문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3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준 영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권 순 용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 준 영

박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02월

위 원 장 권 성 호 (인)

부위원장 임 충 훈 (인)

위 원 권 순 용 (인)

국문초록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급증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변인(성별, 최종학력, 월 소득, 부모 애착, 친구 애착)에 따른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주요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우리나라 20대 성인남녀 중 400명을 편의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선별된 362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최종학력에 따라 대학교/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그리고 월 소득과 부모 및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학습요인 수준이 높았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학습에 취약한 집단특성을 도출해내었다.

둘째,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대한 사회학습요인(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의 및 제한점과 정책적 제언,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불법도박, 불법 스포츠도박, Akers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요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인식

학 번 : 2018-26789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 2
2. 연구 목적 ····· 7
3. 연구 문제 ····· 7
4. 용어의 정의 ····· 8

Ⅱ. 이론적 배경 ····· 10
1. 사행산업과 체육진흥투표권 ····· 10
가. 사행산업 ····· 10
나. 체육진흥투표권 ····· 14
2. 불법 스포츠도박 ····· 17
3. 애착 ····· 23
4. Akers 사회학습이론 ····· 24
가. 사회학습이론의 정의 ····· 24
나. 사회학습이론과 비행행동 ····· 26

Ⅲ. 연구 방법 ····· 31
1. 연구대상 ····· 31
2. 조사도구 ····· 32
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독립변인) ····· 33
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종속변인) ····· 35
다. 기타 배경변인 ····· 35
3. 자료분석 ····· 36
4. 연구윤리 ····· 37

Ⅳ. 연구 결과 ····· 38
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 38
2.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 39
가. 성별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 39
나.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 40
다. 배경변인 및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 42
3.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 48
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 48
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 49

Ⅴ. 논의 ····· 53

Ⅵ. 결론 및 제언 ····· 57
1. 결론 ····· 57
2. 제언 ····· 59

참고 문헌 ····· 62
부록(설문지) ····· 68
Abstract ····· 76

표 목 차

[표 1] 국내 사행산업 시장규모(총매출액 기준) ····· 13
[표 2] 국내 사행산업 조세 및 공익기금 조성 규모 ····· 13
[표 3] 체육진흥투표권 연도별 매출액 및 기금조성 규모 ····· 15
[표 4]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고의 예산비중 비교 ····· 15
[표 5] 국내 불법도박 업종별 시장규모 추정 ····· 17
[표 6]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경험 ····· 19
[표 7]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의견 ····· 20
[표 8] 연령별 불법도박 참여자의 폐해 경험비율 ····· 21
[표 9]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별 비율 ····· 31
[표10] '차별적 접촉'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33
[표11] '차별적 강화'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34
[표12] '모방'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34
[표13] '인식'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 35
[표14]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 36
[표15]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 38
[표16]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 ··· 40
[표17] 학력에 따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 ··· 41
[표18] 모든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 47
[표19] 단계 선택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48
[표20]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51

Ⅰ. 서론

20·30대가 불법도박으로 멍들고 있다. 2021년 경찰에서 검거한 온라인 불법도박 사범 중에서 66.4%가 20·30대였고, 불법도박 이용자 중에서도 20·3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중독성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불법도박 중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훈, 2022).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의 시장규모와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 및 공익기금 조성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불법도박 시장의 팽창이 함께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도박 중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자 중 20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조성경 등, 2014), 불법 스포츠도박은 주로 지인소개를 통해 최초로 접하게 되고 이후에도 친목 도모를 위해 이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태성 등, 2014).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베팅에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 스스로 지인에게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도록 유혹하면서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었다(권기남, 2020). 이처럼 20대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 이용자이자 주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지인에 의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기도 한 셈이다. 임숙희 등(2019)은 친구, 선후배와 같은 중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비행행동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 이용자이자 취약계층인 20대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어떤 과정으로 학습하고 참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체 사행산업 업종을 '도박'으로 망라하거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최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과제로 볼 수 있다.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을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동 법에 따라 합법으로 허가하는 사행산업 외에는 모두 불법도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 경기의 7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사행산업 수익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고와 기금 등 재원으로 편입된 이후 공익적 성격으로 사용된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금은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의 조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공익기금으로 조성된다. 이처럼 국내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적 성격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와 이에 따르는 공익재원 조성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와 함께 꾸준하게 증가하게 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사행산업 총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약 2.6%에 달하며, 공익재원 조성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5%에 이를 정도로 사행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a).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매출액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10.5% 증가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는 연평균 8.9% 증가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은 국가 체육재정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0년 정부 체육예산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비중이 84.1%(전체 1.7조 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1.4조 원)이며, 같은 기간 전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 중 체육진흥투표권의 조성액 비중이 90.2%(전체 1.7조 원 중 체육진흥투표권 1.6조 원)를 차지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1a). 이처럼 체육진흥투표권은 꾸준한 양적 측면의 성장과 함께 국가 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해왔다.

그러나 국내 사행산업의 고속성장 이면에는 불법도박의 고속 팽창이 함께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70.9조 원에서 2018년 기준 81.5조 원으로 10.6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두 시점에서 모두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전체 불법도박 시장 내 가장 큰 비중(2015년 28.6%, 2018년 25.2%)을 차지하였다. 특히, 2018년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규모는 20.5조 원으로, 같은 기간 체육진흥투표권 시장규모 4.7조 원 대비 무려 4.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투표권보다 매력적인 베팅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스마트폰 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박상현, 2019). 체육진흥투표권은 베팅액 제한 등 각종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이윤 창출을 위해 고액, 재구매 유도 등 사행 심리를 무분별하게 자극하며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이용자는 불법도박 경험이 없는 합법 이용자들과 비교하여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았으며, 스스로도 합법 사행산업과 비교하여 불법도박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20대의 불법도박에 기인한 각종 폐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와 비교하여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에서는 불법도박 폐해 관련 질문에 20대의 응답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제3차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 중에서 불법도박으로 '건강 문제'와 '직장/학업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 9.5%였으나, 3년 후 제4차 조사에서는 응답 비율이 각각 22.7%와 29.0%로 대폭 상승하였다. 나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전체 이용자 중 20대는 10%에 불과한 반면(국민체육진흥공단, 2021b),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전체 가입자 중 20대가 약 3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경 등, 2014).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불법도박의 문제는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에 의한 20대의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중심으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도박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Shaffer 등(1999)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마리화나와 다른 불법 약물의 사용보다도 불법도박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더 많고, 청소년의 약 13%가 향후 도박문제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시기를 도박문제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간주하였다. 권복순과 김영호(2011)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국내 대학생의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불법도박에 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과 불법도박 인식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조제성, 김상균(2018)은 부모의 불법도박 행동요인이 청소년의 불법도박 참여에 영향을 주며,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불법도박 이용의 부적인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임숙희 등(2019)은 중요 타자의 불법도박이 청소년 도박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 사회학습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부모와 친구 애착, 성별, 학력이 청소년과 대학생의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안정감을 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와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Ainsworth, 1989),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은 애착과 영향이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Kenny & Rice, 1995). 친구 애착과 관련하여 또래와의 강한 유대가 도박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일반적이었으나 (이경님, 2002; 박경아, 2003; 소심향, 2016), 일부에서는 온라인 상황에서 또래에 대한 높은 동조가 도박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심옥녀, 2008). 이에 소심향(2016)은 일상과 온라인에서의 친구관계가 각기 다른양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연(2018)에 따르면 부모 애착이 도박행동을 감소시켰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도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아와 박근우(2016)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이 여학생보다 도박문제가 심각했으며, 심지어 남학생이 불법적인 자금조달 수단까지 동원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과 관련하여, 조제성과 김상균(2018)의 연구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도박 문제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체 합법 사행산업 또는 전체 불법도박 업종을 망라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른 불법도박 폐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사행산업별 특성과 주요 이용자층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 사행산업과 그에 대응되는 개별 불법도박에 관한 세부 연구에는 미진하였다. 또한 대부분 조사대상을 청소년 또는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2018년 기준 전체 불법도박 시장 81.5조 원 중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20.5조 원으로 가장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파생되는 불법도박의 폐해가 20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이용자 중 20대 이용자는 약 10%에 불과한 반면(국민체육진흥공단, 2021b),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전체 가입자 중 20대가 34%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성경 등, 2014).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고객을 새롭게 유인하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가 친구, 지인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권기남, 2020). 이처럼 불법도박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폐해가 가장 심각한 불법 스포츠도박 업종에 한정하여, 이미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이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친구 및 가족과 같은 중요 타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권유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20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는 다소 미비하였다고 판단된다.

Akers(199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가족 또는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인식의 과정을 따라 비행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유순화(2003)에 따르면 개인은 비행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과 모방을 통하여 비행에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하게 된다. 비행에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하면 비행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동시에 비행을 강화하는 모델에 노출되기 쉬워진다. 비행행동과 비행을 강화하는 모델에의 노출은 다시 비행에 우호적인 사회적인 접촉을 증가

시킨다. 임숙희 등(2019)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친구, 선후배 등 중요 타자의 불법도박이 청소년의 불법도박을 증가시키는 주요 영향 요인이며 청소년 주변에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법도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조제성, 김상균(2018) 연구에서 불법도박에 관한 부모, 친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 요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Akers 사회학습이론과 이를 토대로 하는 선행연구는 청소년기의 다음 발달단계이자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인 20대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같은 중요 타자와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접촉 및 상호작용, 모방의 과정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이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래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에 노출되기에 가장 취약한 20대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우호적인 인식을 어떤 과정으로 학습하고 참여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에 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급증하는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학습 요인과 학습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현상과 이에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의 억제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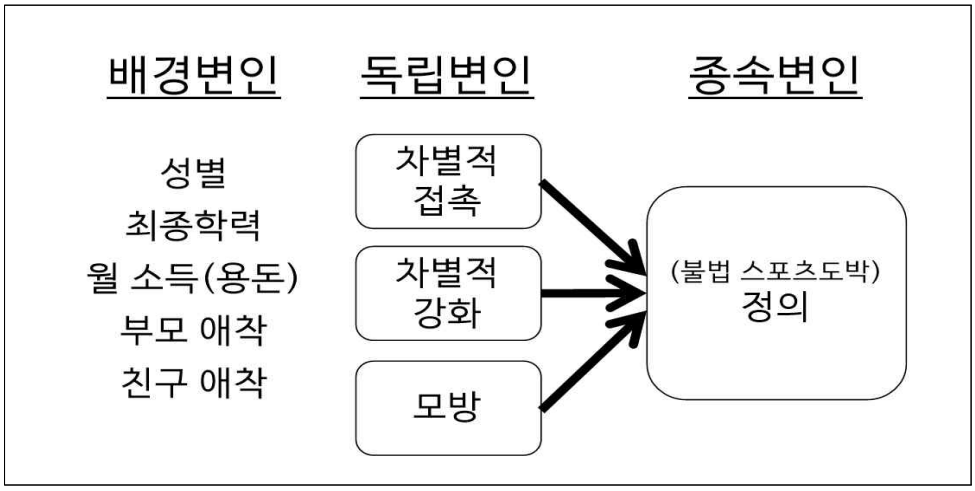
본 연구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학습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Akers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성별, 학력, 월 소득(용돈), 부모 애착, 친구 애착에 따라 20대의 사회학습요인과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주요 사회학습요인(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요인)이 20대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사업자로서 국내외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예측해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베팅 산업으로 정의한다.

■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외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스포츠베팅 산업으로 정의하며,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으로 허용되는 스포츠베팅의 국내 이용 모두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정의한다.

■ 사회학습요인

본 연구에서 ‘사회학습요인’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포함하는 비행행동 또는 비행행동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요인을 의미하며,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의 사회적 학습요인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요인(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요인)으로 정의한다.

● 차별적 접촉

‘차별적 접촉’은 비행에 우호적 태도를 갖거나 또는 비행행동을 하는 중요 타자와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중요 타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 수준으로 정의한다.

● **차별적 강화**

'차별적 강화'는 비행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에 관한 영향으로, 비행의 결과로써 긍정적인 보상을 얻게 되거나 부정적인 처벌을 회피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비행은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 강화를 불법 스포츠도박에 따른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에 관한 영향으로 정의한다.

● **모방**

'모방'은 타인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이후 그와 유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식과 행위모형 형성에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인식과 행위모형 형성에 대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의 직·간접적인 관찰의 영향으로 정의한다.

■ 인식

본 연구에서 '인식'은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인식(definition)' 개념에 기초하여 주어진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며, 주어진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규정하는 규범에 관한 생각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부여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규정하는 개인의 생각 및 태도로 정의한다.

■ 애착(부모 애착, 친구 애착)

애착은 안정감의 경험을 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로, 개인에게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애착'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로 인식되는 사람과 형성한 강한 정서적 유대로, '친구 애착'은 친한 친구 또는 또래와 형성하고 있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사회학습요인이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급증하고 있는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를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행연구 등 문헌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사행산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았으며, 제2절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애착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제4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Akers의 사회학습 이론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불법도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사행산업과 체육진흥투표권

가. 사행산업

1) 사행산업의 정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1b)는 사행산업을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김교헌(2006)은 도박을 오락과 여가의 맥락에서 가치 있는 것을 더 큰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할 것을 기대하며, 우연이나 운이 게재되어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에 거는 내기로 보았다. 도박을 활용한 사행산업은 낙후지역에 관광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이면서,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광의의 사행산업에는 사회제도권에서의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불법도박 또는 고스톱과 같은 여가활동에 해당하는 친목 목적의 활동도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행산업의 역사는 깊고 시대·장소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계속 변화해왔다(Hinde, 2005). 광의의 사행산업은 시대·문화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금지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대부분의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도박은 범죄시 되고 합법적인 도박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김교헌, 2006), 20세기 말 도박은 공공정책과 관련을 맺으며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Korn, Gibbins & Azmier, 2003). 광의의 사행산업과 도박의 사회제도권 내로의 급속한 편입 및 확산현상에 대하여 Shaffer 등(1999)은 (1)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2)관광산업에서는 도박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3)기술발전으로 전자기기 및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였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광의의 사행산업과 도박은 시대·문화와 필요에 따라 사회제도권 내에서 때로는 인정받기도, 때로는 불법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의 사행산업은 사회제도권 내에서 허용되는 합법 산업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행산업을 이러한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며, 사회제도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행행위를 통한 산업은 불법도박 시장(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도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불법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사행산업은 사회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산업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을 개별법령에 따른 7개의 업으로 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업종에는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과 소싸움 경기가 있다. 일부 사행산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광의의 사행산업(불법도박을 포함)과 협의의 사행산업(합법 사행산업에 한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광의의 도박(합법 사행산업을 포함)과 협의의 도박(불법도박에 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주제 및 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

우리나라 근대 사행산업의 출발점은 1922년 4월 5일 국내 최초의 경마법인인 조선경마구락부의 설립인가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전국에 경마구락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가 1942년 조선마사회령의 공포와 함께 조선마사회로 단일화되었다. 해방 이후 경륜과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되었고,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세와 공익기금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2000년대 들어 내국인 전용 카지노(2000년), 체육진흥투표권(2001년), 경정과 복권(2002년) 등이 사회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최민, 2022).

국내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2)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 전체 시장규모는 총매출액 기준 2017년 21조 7,263억 원, 2018년 22조 3,904억 원, 2019년 22조 6,507억 원에 달한다. COVID-19 확산 영향으로 경주류 사업(경륜·경정·경마)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도 국내외 스포츠 리그의 전면 중단으로 전례 없는 51일 동안의 발매중단을 하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국내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각 사행산업 수익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에 활용되는데, <표 1>과 <표 2>와 같이 사행산업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공익재원의 조성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또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경륜·경정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세 및 지방세입으로 활용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2)에 따르면 전체 사행산업 수익금 규모는 2017년 6조 1,083억 원, 2018년 6조 2,621억 원, 2019년 6조 6,753억 원에 이르며 꾸준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며, 공공재원 확보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김교헌(2006)에 따르면 정부에게 사행산업은 큰 조세저항이 없는, 자발적이고 매력적인 세수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익금이 공익적으로 사용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교적 손쉬운 재정확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사행산업에 뛰어들었다(박건우, 2009).

<표 1> 국내 사행산업 시장규모(총매출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체육진흥투표권	44,414	41,991	47,428	51,099	48,928	233,860
카지노(내국인)	16,277	15,230	14,001	14,816	4,435	64,759
카지노(외국인)	12,757	12,072	16,253	14,489	5,978	61,549
경 마	77,460	78,015	75,376	73,572	10,890	315,313
경 륜	22,818	21,744	20,515	18,337	3,509	86,923
경 정	6,898	6,369	6,210	5,994	680	26,151
복 권	38,855	41,538	43,848	47,933	54,152	226,326
소싸움경기	299	304	273	267	26	1,169
계	219,778	217,263	223,904	226,507	128,598	1,016,05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시자료를 재구성(2022)

<표 2> 국내 사행산업 조세 및 공익기금 조성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체육진흥투표권	13,021	12,932	14,052	15,611	15,293	70,909
카지노(내국인)	6,331	5,897	5,239	6,506	3,286	27,259
카지노(외국인)	2,144	2,098	2,710	2,449	758	10,159
경 마	16,935	17,296	16,492	15,662	2,626	69,011
경 륜	4,580	4,305	3,999	3,674	576	17,134
경 정	1,309	1,174	1,109	1,089	124	4,805
복 권	16,672	17,328	18,972	21,714	22,555	97,241
소싸움경기	30	53	48	48	8	187
계	61,022	61,083	62,621	66,753	45,226	296,70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시자료를 재구성(2022)

나.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당첨)금을 내주는 표 권”을 의미한다.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당첨금)을 지급하는 레저산업으로, 대중에게는 ‘스포츠토토’라는 명칭으로 익숙하다. 우리나라에 체육진흥투표권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유사한 스포츠베팅이 정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레저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박원우, 2009). 현대 스포츠베팅의 시초는 1923년 영국에서 발행한 ‘Football Pools’로 알려져 있으며(송명규, 2013), 20세기 중후반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스포츠베팅을 도입했다(Cosgrave & Klassen, 2001).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최초 도입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자로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 현재는 5년 단위의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개정(2022.1.18.)[1]으로 현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코리아)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2025.7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01년 출범 첫 해 28억 원의 총매출액과 7억 원의 공익재원 조성을 달성한 후, 20년이 지난 2021년에는 5조 6,195억 원의 총매출액과 1조 7,728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체육진흥투표권의

1)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누적 매출액은 50조 9,098억 원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14조 1,596억 원에 달한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1a).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시자료(2022)에 따르면 <표 4>와 같이 국가 체육예산 중에서 8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 중 90%를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기여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가 체육재정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선사하는 재정적 수익은 합법화된 스포츠베팅 사업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에서 직접 스포츠베팅을 관리하는 나라에서는 매출총량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그 소비수준을 통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보했다(탁민혁, 한승백, 2019).

<표 3> 체육진흥투표권 연도별 매출액 및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총매출액	41,968	47,347	51,034	48,928	56,195	245,472
기금조성액	12,922	14,016	15,582	15,293	17,728	75,541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시자료를 재구성(2022)

<표 4> 국가 체육예산 중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고의 예산비중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기 금	12,950	9,815	12,074	14,261	15,430	64,530
(비중)	90.6	88.4	82.4	84.1	87.7	86.5
국 고	1,337	1,286	2,572	2,700	2,164	10,059
(비중)	9.4	11.6	17.6	15.9	12.3	13.5
계	14,287	11,101	14,646	16,961	17,594	74,589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시자료를 재구성(2022)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억제와 안정적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도 다수 진행되어왔다. 박상현(2019)은 불법 스포츠도박과 비교하여 취약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에 집중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수요의 흡수를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다양화와 연간 발행회차 확대, 매출총량 확대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택수(2020)는 모바일 베팅 환경 제공, 발매 및 환급시간 규제 완화와 같은 비금전적 차원의 규제 완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탈세, 운영자의 환급거부, 청소년의 도박중독 등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장영(2016)은 불법 스포츠도박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와 환급률 상향조정,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예방과 억제, 그리고 안정적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황과 이용 동기 및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 문제점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제2절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불법 스포츠도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고속 성장 이면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고속 팽창도 함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외의 모든 스포츠베팅 및 유사 행위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금지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 5>에서와 같이 각종 불법도박 시장에 대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 2015년과 비교하여 2018년 전체 불법도박 시장은 70조 8,934억 원에서 81조 5,474억 원으로, 10조 6,5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시장의 팽창은 '사설 카지노(6조 1,346억 원 증가)'와 '온라인 즉석 및 실시간 게임(40조 952억 원 증가)'이 주도하였으며, 두 시점의 조사 모두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불법도박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각각 28.6%, 25.2%)을 차지했다. 특히, 2018년의 추정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규모는 20조 5,1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총매출액 규모 4조 7,428억 원 대비 약 4.3배에 달했다.

<표 5> 국내 불법도박 업종별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8	증 감
불법 스포츠도박	202,774	205,106	2,332
불법 온라인 카지노	89,854	106,250	16,396
사설 카지노	13,610	74,956	61,346
불법 하우스	36,725	36,655	▽70
불법 사행성 게임장	131,814	149,806	17,992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40,639	81,591	40,952
불법 웹보드 게임	65,687	53,770	▽11,917
불법 경마·경륜·경정	127,831	103,508	▽24,323
불법 소싸움	-	3,832	3,832
계	708,934	815,474	106,540

* 제4차 불법도박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결과를 재구성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명에 힘입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박상현, 2019). 잠재적인 시장을 고려하였을 때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규모는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임태성 등,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1)은 2010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는 140만 명 이상이며, 이중 실제 정기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5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규모의 증가 추세로 보아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 수는 당시의 추정치보다도 증가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구매상한 설정, 발매 시간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비교하여, 규제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를 끊임 없이 자극하며 이용자들을 베팅의 늪으로 유혹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매력적인 베팅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의 비교우위를 차지해왔다(박상현, 2019).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는 불법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그 폐해가 상당하다(Costes, 2016). 김나혜 등(2015)에 따르면 불법도박은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가 높은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제반 문제에 노출된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적 측면의 문제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가 높은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금전적 피해 및 심리적 제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도박은 사회제도권 밖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액 당첨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소위 '먹튀'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불가능하며, 소위 '검은 돈'의 유통창구로 이용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주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과 연계되어 스포츠의 신뢰와 권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기도 한다. 서희진과 한승백(2012)은 K-리그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파생되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폐해에 주목하였고, 김나혜 등(2015)은 스포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을 조장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도박임을 지적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구매액 상한 설정, 발매시간 제한 등의 각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이윤 창출을 위하여 고액 구매, 재구매 유도 등 고객의 사행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적·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9)는 불법도박 참여 경험자 783명과 불법도박 경험이 없으면서, 합법 사행산업 경험이 있는 3,175명을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표 6>과 같이 불법도박 참여 경험자는 합법 사행산업 참여 경험자와 비교하여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일관되고 유의미하게 크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중독성의 차이도 일관되고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표 7>과 같이 불법도박 참여자는 스스로도 불법도박이 합법 사행성 게임과 비교하여 개인적·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중독성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경험 - 평균/ 표준편차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 경험		불법도박 (n=783)	사행산업 (n=3,175)
개인적 폐해	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2.8/ 1.1	2.0/ 1.5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2.8/ 1.1	1.9/ 1.5
	업무나 학업에 문제가 생겼다***	2.7/ 1.1	1.8/ 1.4
사회적 폐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2.7/ 1.1	1.9/ 1.5
중독성	사행성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도 중단하기 쉽지 않다***	2.8/ 1.1	1.9/ 1.5

*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결과를 재구성

*** $p<0.01$

<표 7>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 의견 - 기술통계

사행성 게임에 대한 의견		불법도박 (n=783)
불법도박이 합법 게임에 비해 개인적 폐해가 크다	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114(14.5%)
	보통이다	172(23.2%)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488(62.2%)
불법도박이 합법 게임에 비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	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109(13.9%)
	보통이다	174(22.2%)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501(63.9%)
불법도박이 합법 게임에 비해 중독성이 높다	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121(15.4%)
	보통이다	190(24.2%)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474(60.4%)

*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결과를 재구성

불법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는 20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6)와 비교하여 제4차 조사(2019)에서는 불법도박 폐해 관련 질문에 20대의 응답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제3차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 중에서 불법도박으로 인해 '건강 문제'와 '직장/학업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 9.5%였으나, 3년 후인 제4차 조사에서는 응답 비율이 각각 22.7%와 29.0%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인/가족관계 문제'의 경험 비율이 40대와 50세 이상에서 감소한 반면에, 20대와 30대에서는 문제경험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20대의 대인/가족관계 문제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전체 이용자 중에서 20대 이용자는 약 10%에 불과한 반면(국민체육진흥공단, 2021b),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전체 가입자 중에 20대가 약 34%의 가장 높은 가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경 등, 2014).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주로 행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IP를 우회해야하는 온라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20대가

주 이용자를 형성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김나혜 등(2015)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에는 성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에서 청소년에게는 불건전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되지 않았던 사행사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과도하고 왜곡된 습관을 형성하게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조성경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을 경험한 대학생 중 84%가 중위험 도박자 또는 문제성 도박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체육진흥투표권 참여가 단순한 여가의 수준을 넘어 위험수준의 도박습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불법 스포츠도박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연령별 불법도박 참여자의 폐해 경험비율

구 분		3차 조사(n=490)	4차 조사(n=783)
건강 문제	20대	2.1%	22.7%
	30대	10.3%	20.9%
	40대	16.1%	23.4%
	50세 이상	21.6%	26.0%
직장/학업 문제	20대	9.5%	29.0%
	30대	12.5%	27.7%
	40대	15.2%	28.0%
	50세 이상	10.8%	25.8%
대인/가족관계 문제	20대	11.5%	22.0%
	30대	16.7%	21.9%
	40대	27.3%	25.5%
	50세 이상	35.2%	24.2%

* 제3·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2019) 결과를 재구성

불법 스포츠도박 최초 참여경로에 관한 임태성 등(2014)의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경로 중 주변인의 소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권기남(2020)과 김서연(2015)은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자들이 자신의 베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광고, 문자메시지 홍보와 지인을 통한 소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인을 통한 소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참여자의 추천인은 베팅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보상으로 얻게 되는데, 불법 스포츠도박에 중독이 되고 돈을 잃게 되면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친구, 지인을 불법 스포츠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이게 된다(김서연, 2015). 권기남(2020)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지인 추천이 우수한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 '총판'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총판'은 일반적인 이용자일 때와 비교하여 추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의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주변 지인뿐만 아니라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불특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이트 가입 및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적인 고리를 통해서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참여자가 불법 스포츠도박의 참여자로, 심지어 때로는 '총판'이라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중간 매개자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도박의 최초이용 및 심화의 근간에는 포인트 제도와 포인트를 얻기 위한 주변인의 소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애착

가. 애착의 정의

애착이란 안정감의 경험을 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개인에게 안정된 느낌과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가까우며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Ainworth, 1989).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은 영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영향이 지속되는데, 확실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애착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nny & Rice, 1995). 김은실(2017)에 따르면 애착은 타인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주 양육자, 또래와 같은 중요 타자와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성인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자녀 양육태도, 직장생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 부모 애착, 친구 애착과 불법도박

부모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를 말하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 되어 전 생애에 걸쳐서 관계형성과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58).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애착이 높을수록 도박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혜경 등, 2014; 박순아, 박근우, 2016; 박희연, 2018). 정병삼(2010)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하더라도 부모 애착이 높은 경우 일탈행동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역으로 부모와의 애착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도박문제에 취약한데, 이에 대해 권순군(2017)은 애착의 결함을 채우려는 보상적안 행동으로 도박문제에 취약해지며, 도박 등의 강박행동을 통해 애착욕구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친구 애착은 친구와 또래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신뢰와 이해,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정택용, 2016). 선행연구에서는 친구 애착이 높을수록 도박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미, 2000; 이경님, 2002; 소심향, 2016).

4. Akers 사회학습이론

가. 사회학습이론의 정의

Akers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구조론적 설명과 심리학의 강화 이론에 대한 개념을 보완한 이론이다(김준호 등, 2015).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범죄가 사회경제 또는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의 결과로 보았다. 따라서 범죄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학습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범죄 행동은 범죄와 차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습되는 것으로 보았다(박정선, 황성현, 2013). 즉, 범죄에 우호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며 범죄에 관한 우호적인 인식을 배움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신송연, 장현석, 2013). 그러나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비행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고, 이러한 비행 학습에 대한 개인수준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유영재, 심호규, 2010).

이에 Akers는 차별접촉이론을 토대로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가져오고, 모방을 통한 비행학습의 개념을 더함으로써 자신만의 비행이론을 탄생시켰다. 즉, 인간은 보상과 처벌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행 행동을 하는 주변인과의 사회적 접촉과 행동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과 처벌이 주어지는가를 학습한 결과로, 만약 비행 행동이 비범죄적 행동보다도 나은 보상이 주어지거나 별다른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이종원, 2013). 즉, Akers 사회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으로 인간은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행동 관찰을 통해 비행 행동을 학습한다는 것이며(Akers, 1979, 1997, 1998; Hwang, 2000), 이러한 비행의 학습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으로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과 인식(definitions)이 있다(Akers, 1979).

‘차별적 접촉’은 차별적 교제라고도 하며, 비행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갖거나 또는 비행행동을 하는 중요 타자와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와 가치 및 규범을 가지고 있는 중요 타자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황성현, 이강훈, 2013). 비행행동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고 부정적이지 않은 친구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식을 갖게 된다(유순화, 2003).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하여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중요 타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별적 강화’는 행동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에 관한 영향으로, 비행의 결과로 긍정적인 보상을 얻거나 또는 부정적인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면 비행행동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초의 일탈 행위는 우연히 발생하거나 또는 차별적 접촉에 의해서 시작되며, 일탈 행위가 지속되기 위한 주요인으로는 일탈 행위에 대한 보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달려있다(조해찬, 2019). 비행을 통해 긍정적인 보상을 얻거나 부정적인 처벌이 회피된다면 비행행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벌을 받거나 보상이 상실되면 행동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조은미 등, 2016).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후, 그와 유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의 주요 과정 중 하나로, 자신의 행위모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조해찬, 2019). 가족, 친구, 대중매체를 통해 비행행동을 보거나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황성현, 2008). 중요 타자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할 기회가 많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하게 되어,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인식’은 개인이 특정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며, 특정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좋고 나쁨 등을 규정하는 규범에 관한 생각이

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행위에 대해 집단 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된다(조해찬, 2019). 즉, 사회와 개인이 비행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갖거나 비행에 합리화를 잘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황성현, 이강훈, 2013). 개인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을 학습하게 될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4가지 주요 사회학습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비행 행동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개별 사회학습요인은 각기 다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조은미 등, 2016).

나. 사회학습이론과 비행행동

Akers 사회학습이론은 주로 사회학, 범죄심리학 등 분야에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Akers 사회학습이론은 가족, 친구 등 중요 타자의 영향과 같은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며,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에서 비행과 범죄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순청 등, 2018). Akers 사회학습이론은 국내에서도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의 여러 가지 비행요인 중 비행친구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권구환 등, 2019). Akers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민원홍, 2018). 즉, 비행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과 비행행동의 직·간적접인 모방을 통해 비행행동에 관한 우호적 인식을 학습하여 결국 비행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유순화(2003)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하거나 비행에 긍정적 태도를 가진 친구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 비행행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새롭게 배우거나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행행동을 학습하게 되며, 이는 다시 비행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순환을 거치게 된다.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은 주로 비행행동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부모, 비행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와 접촉 수준, 그리고 비행에 대한 친구들의 규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윤민우(2012)는 비행에 우호적인 또래의 수와 비행에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한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의 불량 동아리 가입여부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대웅 등(2016) 연구에서는 주요 비행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의 수가 학교폭력을 유발·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유영재, 심호규(2010)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친구의 수는 모두 일반비행, 인터넷비행 및 전체비행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개념 중 차별적 접촉 변인이 비행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황성현, 2010; 권구환 등, 2019).

선행연구에서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주로 차별적 보상·처벌 변인으로, 즉 비행행동에 대한 이해득실(유순화, 2003), 비행에 대한 부모 및 친구의 반응(황성현, 2008), 처벌과 손실(이성식, 2011) 등으로 측정되었다. Akers 사회학습이론의 다른 변인과는 다르게 차별적 강화는 비행행동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력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조은미 등(2016) 연구에서 차별적 강화요인 중 처벌요인은 청소년 비행 유형 중에서 폭력을 제외한 다른 비행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순화와 정규석(2003)의 연구에서 차별적 강화요인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차별적 강화 요인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과의 높은 상호 영향으로 인해 다른 변인의 영향력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kers 등(1979)에 따르면 차별적 접촉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적 강화요인이 마리화나와 음주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은미 등(2016) 연구에서는 차별적 강화요인 중 보상요인이 청소년 비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모방(imitation)'은 대부분 가정 폭력이나 또래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 경험과 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적인 관찰 변인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비행의 피해뿐만 아니라, 비행을 단순하게 목격하는 간접적인 피해 또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2014) 연구에서는 또래의 직접적인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폭력을 목격하는 간적접인 폭력피해 또한 폭력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폭력 피해보다도 간접적인 폭력의 피해경험 또는 관찰이 폭력의 학습에 높은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중요 타자의 폭력행동에 대한 모방 학습이 단순하게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조은미 등(2016) 연구는 청소년의 재산비행과 폭력비행 행동의 학습에 대한 모방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황성현(2009) 연구에서는 부모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할수록 그 자녀 또한 흡연·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인식(definitions)'은 주로 '정의'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 신념의 측면에서 측정되었고, 비행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일수록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2011)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에 관한 인식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사회적인 인식이나 비행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조은미 등(2016)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재산비행에 관한 인식이 실제 재산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황성현(2008)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이 연구대상이었으며, 음주·흡연과 같은 지위비행 등 비행의 행동 여부가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인식, 차별적 접촉, 모방 요인은 각각 청소년 비행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나, 일부 연구에서 차별적 강화요인은 비행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순화, 정규석, 2003; 신송연, 장현석, 2013; 박희연, 2018; 권구환 등

2019). 권구환 등(2019)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차별적 강화요인을 보상과 처벌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 비행과 다른 변인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외부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차별적 강화 요인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행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 애착, 친구 애착 등의 변인을 통제하고, 각각의 사회학습요인에 의한 영향력의 검증과 주요 사회학습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송연과 장현석(2013)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밝혀냈고, 이상균(2008)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 시기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감독이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정적영향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도덕적 신념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요인을 고려한 경우, 애착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하며, 간접적인 영향만 일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준호 등, 2015).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은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의 학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이자, 청소년의 다음 시기이며 성인기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20대를 연구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사회학습요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다소 미비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불법도박 또는 비행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의 최초 이용경로가 지인의 소개임을 확인한 선행연구,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이자 가장 큰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20대임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20대가 차별적 강화, 차별적 접촉, 모방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 불법도박에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에 관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의 학습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참여로 이어져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숙희 등(2019) 연구에서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활용하여 친구나 선후배 등 중요 타자의 도박행동이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으며, 유순화(2003)는 일탈적이거나 비행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행동에 우호적인 인식을 새로이 배우거나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비행행동을 학습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Karl(2020)은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인식의 개념을 활용해 범죄행동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정당화한다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혀내었다. 나아가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임태성 등(2013) 연구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자의 최초 참여경로 중 주변인의 소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정래(2018) 연구에서는 학원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집단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준거집단의 영향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최초로 접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유순화, 2003; 임태성 등, 2013; 이정래; 2018; 임숙희 등, 2019; Karl, 2020)를 통하여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수준의 인식이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으로 이어져,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우리나라 20대 성인남녀 중 400명을 편의 표본 추출방식(convenience sampling method)으로 선정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중에서 불성실하거나 편향되었다고 판단되는 응답지 38부를 제외한 362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활용한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참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별 비율(n=362)

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자	193	53.3
	여자	169	4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2	55.8
	대학교 졸	126	34.8
	대학원 졸	34	9.4
연령	20~21세	52	14.4
	22~23세	62	17.1
	24~25세	61	16.9
	26~27세	85	23.5
	28~29세	102	28.1
월 소득 (용돈 포함)	0~100만원	80	22.1
	101~200만원	86	23.8
	201~300만원	104	28.7
	301~400만원	83	22.9
	401~500만원	9	2.5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문항지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우리나라 20대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후에 질문지를 보완·수정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세 달 동안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사 이전에 서면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서베이)를 활용하였다. 성별, 학력, 월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을 제외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 등 주요변인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이전에 각 변인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FI, TLI, RMSEA 값을 기준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FI와 TLI 값이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였다(Tucker&Lewis, 1973; Bentler, 1990; 홍세희 2000). 홍세희(2000)를 참고하여 비교적 자유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표본 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RMSEA 값은 .10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RMSEA 값이 .10 이하인 경우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08 미만인 경우 적합도를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Browne & Cudeck, 1993). 변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확보한 경우 송지준(2019)의 제안에 따라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이 .7 이상인 경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 이상인 경우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 값(r^2) 보다 평균분산추출 값이 큰 경우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14).

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독립변인)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개념을 바탕으로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사회학습요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스포츠사회학습 척도(Akers, 1977)와 황성현 연구(2008)에서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한 조은미(2016)의 연구와 임숙희 등(2019) 연구에서 주변인의 스포츠도박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변인은 각각 7문항, 17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했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사회학습요인, 즉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차별적 접촉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적 접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요인 7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차별적 접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의 표준 적재치가 모두 0.5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TLI=.987, CFI=.992, RMSEA=.063으로 높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차별적 접촉 구성개념 CR=.952로, AVE=.741, Cronbach' α= .966으로,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0> '차별적 접촉'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TLI	CFI	RMSEA	CR	AVE
.987	.992	.063	.952	.741

(2) 차별적 강화

차별적 강화 수준의 측정을 위해 단일요인 17문항 설문지를 사용했다. 문항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했으며, 역코딩 10개 문항(1, 2, 6, 7, 8, 9, 13, 14, 15, 17)은 자료분석 시 점수를 역채점 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차별적 강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적합하지 않은 4개 문항(문항 7, 8, 9, 12)을 삭제하고 선별된 13개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의 표준 적재치는 모두 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LI=.972, CFI=.977, RMSEA=.069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CR=.970, AVE=.712, Cronbach' α=.969로 측정되어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1> '차별적 강화'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TLI	CFI	RMSEA	CR	AVE
.972	.977	.069	.970	.712

(3) 모방

모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요인 4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문항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의 모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모두 0.5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자유도가 작은 경우 RMSEA를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홍세희, 2000)을 고려, TLI와 CFI를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했다. TLI=.942, CFI=.981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CR=.902, AVE=.697, Cronbach' α=.919로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

<표 12> '모방'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TLI	CFI	CR	AVE
.942	.981	.902	.697

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종속변인)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Akers(1977) 스포츠사회학습 척도를 기반으로 선행연구(황성현, 2008; 조은미, 2016)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요일 7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모두 0.5보다 높게 나왔고, TLI=.978, CFI=.985, RMSEA=.076으로 높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CR=.941, AVE=.694, Cronbach' α=.959로 측정되어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3> '인식' 척도의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TLI	CFI	RMSEA	CR	AVE
.978	.985	.076	.941	.694

다. 기타 배경변인(애착 및 성별, 최종학력, 월 소득)

비행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 친구 애착을 배경변인으로 보고,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요인 1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심옥녀 2008; 박순아, 박근우, 2016; 소심향, 2016; 박희연, 2018).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 적재치가 모두 0.5보다 높았으며, TLI=.948, CFI=.961, RMSEA=.077으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CR=.930, AVE=.573, Cronbach' α 값은 부모 애착=.934, 친구 애착=.869로 나타났고,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합 .251 보다 높아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기타 배경변인으로 불법도박 및 불법도박 관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최종학력, 월 소득(박순아, 박근우, 2016; 조제성, 김상균, 2018)의 3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총 400부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편향되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8부를 제외하여 총 362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코딩지침에 따라 전산처리 한 이후 SPSS Statistics 26.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위한 내적 합치도(Cronbach' α) 분석을 실시했다.
3) 성별, 월 소득 등 배경변인에 따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및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4) 사회학습요인(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이 20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주요 사회학습요인별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5)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표 14>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구 분	배경변인	사회학습요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모델 1	포함	-	-	-
모델 2	포함	포함	-	-
모델 3	포함	포함	포함	-
모델 4	포함	포함	포함	포함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 과정, 연구 방법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심의 및 승인(IRB No. 2208/004-003)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IRB 승인 내용을 고지하고 참여 동의를 득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 요인과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부모 애착, 친구 애착 요인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표 15>와 같다. 김주환 등(2009) 제언에 따라 왜도 ±2 또는 첨도 ±4를 벗어나는 경우 자료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5>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n=362)

변인(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차별적 접촉(7)	2.19	1.08	0.99	-0.37
차별적 강화(13)	2.41	0.89	0.77	-0.42
모방(4)	2.34	1.03	0.74	-0.65
인식(7)	2.29	1.01	0.87	-0.45
부모 애착(5)	3.89	0.92	-1.01	0.17
친구 애착(5)	3.88	0.60	-0.79	2.05

본 연구에서 활용한 투입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적 강화(M=2.41, SD=.89)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모방(M=2.34, SD=1.03), 차별적 접촉(M=2.19, SD=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요인은 평균 2.29, 표준편차 1.01로 조사됨에 따라,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요인 모두 척도 중앙값(2.50)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애착 요인 중 부모 애착은 평균 3.89, 표준편차 .92로, 친구 애착은 평균 3.88, 표준편차 .60으로 나타나, 애착의 하위요인은 모두 척도의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부모 및 친구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본 연구에서의 배경변인은 일반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및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학력, 월 소득,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이다. 배경변인에 따른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성별에 따른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n=362)

변인	성별(n)	평균	표준편차	t(p)
차별적 접촉	남성(193)	2.64	1.18	9.845 (0.000)***
	여성(169)	1.67	0.65	
차별적 강화	남성(193)	2.83	0.89	11.276 (0.000)***
	여성(169)	1.93	0.60	
모방	남성(193)	2.79	1.05	10.202 (0.000)***
	여성(169)	1.83	0.73	
인식	남성(193)	2.75	1.08	10.654 (0.000)***
	여성(169)	1.78	0.61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차별적 접촉(t=9.845, p<0.001), 차별적 강화(t=11.276, p<0.001), 모방(t=10.202, p<0.001) 및 인식(t=10.654, p<0.001) 변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점수가 높으므로, 20대 남성이 여성보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학습요인이 높으며,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최종학력에 따른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학력에 따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n=362)

변인	학력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차별적 접촉	a	2.63	1.16	50.993 (0.000)***	a>b a>c
	b	1.74	0.67		
	c	1.25	0.25		
차별적 강화	a	2.76	0.93	48.458 (0.000)***	a>b a>c
	b	2.05	0.61		
	c	1.65	0.46		
모방	a	2.73	1.08	41.918 (0.000)***	a>b a>c
	b	1.96	0.77		
	c	1.50	0.33		
인식	a	2.70	1.08	47.065 (0.000)***	a>b a>c
	b	1.85	0.65		
	c	1.54	0.42		
주. a=고등학교 졸업 이하(202), b=대학교 졸업(126), c=대학원 졸업(34)					

***p<.001

학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차별적 접촉(F=50.993, p<.001), 차별적 강화(F=48.458, p<.001), 모방(F=41.918, , p<.001), 인식(F=47.065, p<.001)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력 집단 간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사후분석(sheffe test) 결과,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변인 모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응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최종학력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 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이 높으며,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대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배경변인 및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월 소득, 애착 등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배경변인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변인을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우선, 각 변인을 측정한 표본의 신뢰도 계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ronbach' α=.869～.969), 변인 간 상관계수가 모두 .90 이하이므로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에 있어서 독립변인인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요인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834～.857)를 보였으며,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요인과도 정적인 상관(r=.849～.894)을 보였다.

한편,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성별, 학력, 월 소득, 부모 및 친구 애착은 모두 변인 간 정적 상관관계(r=.204～.637)를 보였으며, 배경변인과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r=-.811～-.261)와 배경변인과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r=-.786～-.331)은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18> 모든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성별	-								
2. 학력	.289***	-							
3. 월 소득	.298***	.637***	-						
4. 부모 애착	.358***	.367***	.386***	(.934)					
5. 친구 애착	.204***	.217***	.216***	.519***	(.869)				
6. 차별적 접촉	-.448***	-.465***	-.436***	-.811***	-.337***	(.966)			
7. 차별적 강화	-.501***	-.456***	-.409***	-.732***	-.261***	.857***	(.969)		
8. 모방	-.465***	-.431***	-.392***	-.728***	-.333***	.834***	.844***	(.919)	
9. 인식	-.477***	-.443***	-.426***	-.786***	-.331***	.894***	.864***	.849***	(.959)

주1. 대각선 괄호 안은 해당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나타냄

주2. 성별은 남=1, 여=2;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1, '대학교 졸업'=2, '대학원 졸업'=3으로 코딩하였음

***p<.001

3.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 및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및 모방 변인을 독립변수로,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영향력 있는 변수를 찾아내거나 변수들 사이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가 추가 투입될 때마다 투입된 모든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단계 선택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단계 선택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n=362)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상수)	.072	.062	-	1.16		
차별적 접촉	.452	.041	.482	11.03	.223	4.487
차별적 강화	.288	.051	.253	5.61	.210	4.766
모방	.230	.041	.234	5.58	.242	4.136
$F(p)$	664.414***					
adj.R^2	.846					
Durbin-Watson	1.551					

***p<.001

<표 19>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664.414(p<.001)로 본 회귀식은 적합하다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84.6%로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p<.001)을 미쳤으며, 표준화 계수를 활용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차별적 접촉(β=.482), 차별적 강화(β=.253), 모방(β=.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 한계(Tolerance Limit: TOL)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검정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551로, 자기상관의 가능성도 배제하여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경변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성별과 학력, 월 소득,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모델 2~4]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사회적 학습요인을 추가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 투입한 배경변인인 성별, 학력, 월 소득,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은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을 68.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적 접촉을 추가 회귀하였으며, 설명력은 82.0%로 [모델 1]에 비해 13.0%p만큼 설명력이 증가했다. [모델 2]의 F 값은 229.797($p<.001$)으로 본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이 높게 나타날수록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t=15.98$, $p<.001$). [모델 1]과 비교하여 배경변인 중에서 성별($t=-3.74$, $p<.001$), 부모 애착($t=-4.53$, $p<.001$)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 애착($t=1.07$, $p=.284$)은 [모델 1]에서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차별적 강화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설명력은 84.4%로 나타나 [모델 2]과 비교하여 설명력이 2.5%p 증가하였다. 본 모델의 F 값은 239.297(p<.001)으로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t=9.71, p<.001)과 차별적 강화(t=7.48, p<.001)가 높을수록,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에 비해 부모 애착(t=-3.36, p<.001)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성별(t=-1.91, p=.057)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4]는 [모델 3]에서 모방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모델 4]는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을 8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 3]에 비해서 설명력이 1.1%p 증가했다. 본 모델의 F 값은 230.636(p<.001)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t=8.14, p<.001)과 차별적 강화(t=4.88, p<.001), 모방(t=5.10, p<.001)이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이 증가하였다. 표준화 계수를 활용한 상대적인 설명력은 차별적 접촉(β=.401), 차별적 강화(β=.226), 모방(β=.214) 순으로 나타나, 앞선 다중회귀분석의 상대적 영향력 순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 3]과 비교하여 배경변인 중 부모 애착(t=-3.11, p=0.002)의 유의수준은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모델 1~4] 모두 공차 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은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492로 변수 간의 독립성 조건도 충족하였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순서로 그 설명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적으로 사회학습요인을 추가 투입할수록 유의하게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의 설명(예측)력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20>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362)

모델1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모델 1	(상수)	4.616	.254	-	18.17	-	-
	성별 더미	-.403	.066	.199	-6.15***	.836	1.196
	학력 더미 (고졸 이하)	.354	.121	.174	2.94**	.250	3.998
	학력 더미 (대학교 졸)	.136	.109	.064	1.25	.335	2.984
	월 소득	.000	.000	-.032	-.78	.435	.520
	부모 애착	-.786	.042	-.715	-18.80***	.605	1.654
	친구 애착	.192	.058	.114	3.30**	.728	1.373
	F(p)		131.377***				
	R^2		.689				
	adj.R^2		.684				
모델 2	(상수)	1.646	.269	-	6.13	-	-
	성별 더미	-.194	.052	-.095	-3.74***	.782	1.279
	학력 더미 (고졸 이하)	.028	.094	.014	.30	.238	4.194
	학력 더미 (대학교 졸)	-.066	.084	-.031	-.79	.327	3.054
	월 소득	-.000	.000	-.003	-.10	.518	1.930
	부모 애착	-.216	.048	-.197	-4.53***	.269	3.717
	친구 애착	.048	.045	.029	1.07	.700	1.429
	차별적 접촉	.642	.040	.684	15.98***	.278	3.594
	F(p)		229.797***				
	R^2(R^2 변화량)		.820(.130)				
	adj.R^2		.816				

모델1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TOL*	*VIF*
		B	SE	β			
모델 3	(상수)	1.155	.258	-	4.470	-	-
	성별 더미	-.095	.050	-.047	-1.91	.728	1.374
	학력 더미 (고졸 이하)	-.045	.088	-.022	-.51	.236	4.246
	학력 더미 (대학교 졸)	-.101	.078	-.048	-1.30	.326	3.065
	월 소득	-0.00	.000	-.008	-.27	.518	1.931
	부모 애착	-.152	.045	-.139	-3.36***	.259	3.855
	친구 애착	-.003	.043	-.002	-.06	.682	1.467
	차별적 접촉	.444	.046	.473	9.71***	.186	5.388
	차별적 강화	.370	.049	.325	7.48***	.234	4.269
	$F(p)$		239.297***				
	R^2(R^2 변화량)		.844(.025)				
	adj.R^2		.855				
모델 4	(상수)	.953	.253	-	3.77	-	-
	성별 더미	-.077	.048	-.038	-1.59	.724	1.381
	학력 더미 (고졸 이하)	-.055	.085	-.027	-.65	.235	4.248
	학력 더미 (대학교 졸)	-.109	.075	-.051	-1.44	.326	3.066
	월 소득	-.000	.000	-.008	-.30	.518	1.931
	부모 애착	-.137	.044	-.124	-3.11**	.258	3.874
	친구 애착	.016	.041	.009	.38	.677	1.478
	차별적 접촉	.376	.046	.401	8.14***	.170	5.883
	차별적 강화	.257	.053	.226	4.88***	.193	5.187
	모방	.210	.041	.214	5.10***	.235	4.264
	F(p)		230.636***				
	R^2(R^2 변화량)		.855(.011)				
	adj.R^2		.851				
Durbin-Watson			1.492				

**p<.01 ***p<.001

Reference Group: 성별*남성, 학력*대학원 이상

Ⅴ. 논의

본 연구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이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고찰하여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성별, 학력, 월 소득(용돈),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과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요인이 높게 측정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2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적 학습요인이 높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한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도박문제의 심각성 차이를 확인한 선행연구(심옥녀, 2008; 박희연, 2018; 박순아, 박근우,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2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미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라서는 일관되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교/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및 인식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대학교 집단과 대학원 집단 간에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취약하며, 대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와 관련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이 도박문제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학습에 취약함을 확인한 선행 연구(조제성, 김상균, 2018)가 있어 일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나, 추후에는 최종학력 집단을 초·중·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월 소득과 관련해서는, 월 소득이 낮을수록 일관되게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수준이 높았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 애착과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이 높고, 이에 대하여 우호적인 생각 및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월 소득 수준이 낮고, 부모 및 친구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 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요인에 이미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모 애착과 도박문제의 부적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박순아, 박근우, 2016; 박희연, 2018) 및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 애착 수준이 도박문제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이경님, 2002; 박경아, 2003; 소심향,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배경변인 관련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 남성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그리고 월 소득과 부모 및 친구와 형성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한 사회학습요인이 높으며,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이미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은 20대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인 중요 타자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따르는 보상이 많거나 처벌이 적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의 직·간접적 관찰이 많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에 긍정적인 인식을 습득하고 비행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유순화, 2003; 유순화, 정규석, 2003; 황성현, 2008; 이성식, 2011; 윤민우, 2012; 이대웅, 2016; 조은미 등,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은 주로 지인을 통해 최초로 접하게 되고 이후에도 친목도모를 위해 이용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한 임태성 등(2014)의 연구와 불법도박 이용자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친구, 지인에게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고 있음을 밝힌 권기남(2020) 연구와 방향성이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에 의한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인 인식을 습득하게 됨을 밝혔으며, 이는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움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대는 이미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요 이용자/운영자이자(김태훈, 2022),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피해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임을 고려하였을 때, 20대는 또래인 20대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요인에 가장 취약한 세대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조성경 등(2014)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가입자 중에서 20대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태성 등(2014) 연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이용자는 주로 지인소개의 경로로 이를 최초로 접하게 되고, 친목도모를 위해 이용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험이 없는 20대라 할지라도, 불법 스포츠도박 주요 운영자이자 이용자인 20대 친구, 지인에 의해서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에 노출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순화(2003)는 비행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식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행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다시 비행에 대한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악순환적인 상호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는 20대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의 차단을 위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취약계층인 20대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인식 개선, 경각심 제고 캠페인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 중 인식에 대한 설명력은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Akers 사회학습 이론에 따른 비행의 사회적 학습 과정과 동일한 순서임에 따라, Akers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별, 학력, 월 소득(용돈),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에 대한 사회학습요인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사회학습요인 중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설명력(예측력)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Akers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비행의 사회적 학습과정(차별적 접촉-차별적 강화-모방)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될수록,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학습 수준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도박에 긍정적인 인식을 학습하고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는 차별적 접촉 단계에서, 차선적으로는 차별적 강화와 모방 단계에서 사회적 학습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단속 및 홍보 글 차단과 같은 유통경로의 차단 방안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다른 배경변인과는 다르게,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을 모두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애착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1$, $p<.01$). 이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도박문제에 대한 부모 애착의 부적인 영향을 밝혀낸 선행연구(이예슬, 2014; 이해경 등, 2014; 박순아, 박근우, 2019)를 지지하며,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전 생애 동안 관계 형성,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Bowlby(195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학습요인이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부모애착이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던 점은, 사회학습요인 영향력과는 독립적으로 부모애착이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의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 애착과 같이 사회학습요인과 독립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사회학습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대한민국 20대 성인남녀 362명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및 인식과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부모 애착, 친구 애착,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조사도구는 차별적 접촉 7문항, 차별적 강화 13문항, 모방 4문항과 인식 7문항, 부모 애착 5문항, 친구 애착 5문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362명의 응답 자료를 전산입력 후 SPSS 26.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특성 및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에 따라 대학교/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월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 애착과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일관되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20대 중에서 남성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월 소득과 부모 애착 및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수준이 높으며,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학습요인 이외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집단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둘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및 모방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의 학습에 미치는 사회학습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올바른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의 학습을 위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취약계층인 20대를 대상으로 교육적 차원의 인식 개선, 경각심 제고 등 캠페인이 필요하며,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학습 과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단속 및 홍보글 차단과 같은 유통경로의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의 과정 및 제시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을 결과변수로 설정함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호적, 중립적인 인식의 학습이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을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부모 애착은 여전히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이 높더라도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인 인식을 학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또한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 수준에 따라 실제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으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모 애착과 같이 사회학습요인 외에 불법 스포츠도박 인식과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인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부모 유무를 묻지 않고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와 같은 문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유무에 따라서 문항을 달리하거나 “나는 나의 부모님(또는 부모님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존경한다.”와 같이 부모 유무에 상관없이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20대 성인남녀 전체로 다소 폭넓게 설정하였으나,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력에 따른 참여자는 총 362명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2명(55.8%), 대학교 졸업 126명(34.8%), 대학원 졸업 34명(9.4%)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대학교/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요인과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사이에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을 기준으로 무려 71.5%에 이르는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통계청, 2022)과 의무복무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을 초·중·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재학 집단 등으로 세분화하여 집단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조제성과 김상균(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업을 중단하였던 2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회학습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모방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자원 상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의 직·간접적 관찰 수준을 묻는 단일요인 4문항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다만,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모방의 개념은 비행의 관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찰 이후 그와 유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의 직·간접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관찰 이후 친구와의 돈 내기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과 유사한 행동을 따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모방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월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 애착과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불법 스포츠도박의 사회학습요인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20대 중 남성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그리고 월 소득 수준이 낮고 부모 및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은 집단을 불법 스포츠도박 취약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스포츠베팅 인식교육 등의 교육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에 우호적인 사회적 학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및 홍보 글 단속과 같은 사회학습 단계별 유통 경로의 차단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의 우호적인 인식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의 사회학습요인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미 불법 스포츠도박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유경험자뿐만 아니라, 20대 남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 등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불법 스포츠도박에 취약한 집단과 더불어, 불법 스포츠도박의 주 이용자층인 20대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한 우호적 인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 가족 등 중요타자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집단적·우선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고순청, 이승현, 이창한. (2018).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9-32.

국민체육진흥공단. (2021a). **2021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종합업무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2021b). **2021년 체육진흥투표권 종합인식도 조사**.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02.20.). **체육진흥투표권 매출 및 수익금 배분 현황**. 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144

권구한, 장수미, 홍석호. (2019).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9**(2), 424-468.

권기남. (2020). 불법 스포츠도박, 왜 빠져 드는가?: 학원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9**(6), 55-68.

권복순, 김영호. (2011). 한국 대학생의 도박참여 실태와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9**, 5-28.

권순군. (2017).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권순용. (1992). **스포츠의 사회통제적 요인과 운동선수 비행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교헌. (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김나혜, 박성언, 전정우. (2015). 인문, 사회과학편: 대학생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지속행동에 대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4**(6), 95-105.

김민규. (2019.09.17.). **한국일보. "도박하러 학교가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구 고교생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31517754686?did=NA&dtype= &dtypecode=&prnewsid

김보민. (2019.07.09.). **군포신문. [김보민 칼럼] 청소년 사이버 도박**. http://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8642&section=sc14

김서연. (2015). **남자 중・고등학생의 불법 스포츠도박 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실. (2017). 애착이론에 기반한 중독예방상담의 실제. **상담과 지도, 52**, 297-293.
김은영.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1-22.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준호, 박성훈, 박형민, 신동준, 이성식, 장안식, 황지태. (2015).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김태훈. (2022.01.01.). **데일리안. '멍드는 MZ세대' 불법 스포츠 도박 박멸하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67572
박건우. (2009).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박경아. (2003).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박상현. (2019).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 47-66.
박순아, 박근우.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능력 및 부모애착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3), 207-224.
박원우. (2009). 스포츠토토 사례연구-전략적 사회책임경영을 통한 스포츠토토의 부활과 성공. **경영교육연구, 13**(1), 1-32.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박희연. (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9).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a).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b).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2.03.27). **사행산업 통계**. https://www.ngcc.go.kr/statis/scale.do
서동우. (2016). **대학생의 불법스포츠도박 경험과 도덕적 의사결정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소심향 (201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송명규. (2013). 스포츠 윤리, 누구의 책무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성 강화의 필수조건, 공영화. **스포츠과학, 124**, 16-24.
신송연, 장형석. (2013).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통제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7**(2), 3-34.
심옥녀. (2008).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유순화. (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 연구, 10**(4), 289-315.
유순화, 정규석. (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0**(2), 195-214.
유영재, 심호규. (2010). 사회학습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113-139.
윤민우. (2012). 비행 요인들과 폭력비행, 그리고 청소년 폭력집단(Gnag)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집단 폭력의 특수성과 교정 정책적 함의. **교정담론, 6**(1), 175-214.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협회지, 40**(8), 191-206.
이대웅, 손주희, 권기현. (2016). 학교폭력 위험예측을 통한 선제적 정책대안의 모색: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6(2), 95-125.
이성식. (2011). 청소년비행에서 개인성향요인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조건적 효과-두 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2**(3), 347-368.
이장영. (2016). 스포츠 베팅산업의 합법적 확산 방안. **사회과학연구, 32**(1), 97-122.
이종원. (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82.
임숙희 김예나, 권선중. (2019). 주변인의 불법도박이 청소년의 불법도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사이버 범죄행동의 조절효과. **경찰학논총, 14**(4), 307-327.
임태성, 이호열, 김주용. (2014). 불법 스포츠토토 참여자들의 도박중독수준에 따른 이용행태 및 합법 스포츠토토 전환의사 차이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2), 469-483.
전택수. (2020).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한계 불법 스포츠도박과 체육 예산 문제. **체육과학연구, 31**(1), 100-144.
정택용.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또래 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조성경, 한진솔, 송아름, 양동명, 고현정, 김한별, 손새미, 한주연. (2014). 대학생의 스포츠토토 경험유형에 따른 도박중독 심각성에 대한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461.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357-378.
조해찬. (2019).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 일탈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민. (2022).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행산업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탁민혁, 한승백. (2019). 스포츠베팅: 돈과 윤리의 딜레마. **한국체육학회지, 58**(2), 97-112.

통계청. (2022.10.27). **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불법스포츠베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성현. (2008).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3**(1), 5-29.

황성현. (2009). 청소년 흡연·음주행위에 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0**(1), 113-139.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s, 44*, 709-716.

Akers, R. L. (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2nd ed.)*. California: Wadsworth.

Akers, R. L., Krohn, M. D., Lanza-Kaduce, L., Radosevich, M.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 636-655.

Akers, R. L. (1997).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California: Roxbury.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Routledge.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3), 350-373.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rowo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A Bollen & JS Long.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 136-162.

Cosgrave, J., & Klassen, T. R. (2001). Gambling against the state: The state and the legitimation of gambling. *Current Sociology, 49*(5), 1-15.

Hinde, P. (2005). Gambling, exchange systems, and moraliti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4), 445-479.

Indiana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10).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Use by Indiana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IPRC 2010 Prevalence Statistics Main Findings.* Indiana: Prevention Resource Center.

Opp, K. D. (2020). Analytical criminology: Integrating explanations of crime and deviant behavior. Seattle: Routledge.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Korn, D., Gibbins, R., & Azmier, J. (2003). Framing public policy towards a public health paradigm for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 235-256.

Özbay, Ö., & Özcan, Y. Z. (2006). A test of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Juvenile delinquency in the high schools of Ankara,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0*(6), 711-726.

Shaffer, H. J., Hall, M. N., & Vander Bilt, J. (1999).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gambl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search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 1369-1376.

Hwang, S. (2000). *Substance use in a sample of South Korean adolescents: A test of alternative theories*. University of Florida.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사회학습요인(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요인)이 20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인식(Definit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한민국 20대 성인남녀에 해당함에 따라 설문조사일 기준으로 20대(만 20세~만 29세)에 해당하는 분께서만 설문에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전체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사회학전공 박 준 영
(010-5575-2706 / joke4588@snu.ac.kr)

☞ 응답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에 응답하기 이전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며 오프라인 스포츠토토 판매점과 인터넷 발매사이트(BETMAN)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를 제외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스포츠베팅

○ **사회학습요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포함하는 비행 행동이나 비행에 관한 인식(주어진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규정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요인

다음은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적 접촉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차별적 접촉'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친구,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차별적 접촉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친구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부모님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친구들과 오래 알고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친구들 중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친구들은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학습요인 중 차별적 강화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차별적 강화'는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 결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보상이나 부정적인 처벌에 관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차별적 강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과 더 친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친구들이 알게 되더라도 그들은 나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부모님이 알게 되더라도 그들은 나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야단치거나 벌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다면 부모님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다면 경찰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면 지루함이 완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면 스트레스나 고통이 덜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불법 스포츠도박은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불법 스포츠도박은 나의 일상습관을 나쁘게 만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불법 스포츠도박은 나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일(예. 기분이 좋아짐, 친구들과 친해짐 등)이 일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일(예. 정신건강이 나빠짐, 친구들과 멀어짐)이 일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학습요인 중 모방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모방’은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찰에 의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모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관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족들 중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위 다른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관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TV, 영화나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여러분들의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인식'은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규정하는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인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주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나쁜 행동이지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 지인의 불법 스포츠도박 행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두가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여러분들의 부모, 친구와의 애착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부모 애착'은 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친구 애착'은 친한 친구(또는 '친한 또래')와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애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하여 부모님(또는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분')과 자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래에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친구(또는 '친한 또래')들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 (만 세)

2. **성별** : ① 남 ② 여

3. **최종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4. **월 소득(용돈)** : (만원) 용돈과 노동·자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Effect of the Social Learning Factors on the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among 20s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ajor social learning factors of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on the 20s'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rapidly increasing illegal sports gambling problems among 20s.

It was designed to find 20's social learning factors and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according to 5 backgrounds(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parental attachment and friend attachment). Moreover, it focused on how 3 major social factors(differential association,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d imitation) affect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among 20s. Variables are based on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Independent variables are 3 major social factors of illegal sports gambling. Dependent variable is the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definition. Background variables are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parental attachment, and friend attachment.

A sample of 400 adults in their 20s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total of 362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valid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le over female, those who didn't graduate college over who did and those who have relatively low monthly income or less parental/friend attachment tend to have higher social learning level and more favorable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Second, major social learning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20s' definition of illegal sports gambling. The relative effect of major social learning factor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ifferential association, differential reinforcement and imi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words : illegal gambling, illegal sports gambling,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learning factor, differential association, differential reinforcement, imitation

Student Number : 2018-26789